

부정적인 ‘형성 사건’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미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장기영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본 논문은 미국 국민들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막후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국내 정치를 조명한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이른바 ‘형성 사건(formative event)’으로 작용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2015년에 행해진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나 1980년대 미일 통상 전쟁처럼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형성 사건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정치 세대일 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사 문제에 관한 향후 한국의 공공 외교 방향은 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미국 국민 자신들의 역사적 기억에 연동시킴으로써 미국 정부에서 때로는 전략적인 관점으로 과거사 문제를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형성 사건, 제2차 세계대전, 미일 통상 분쟁, 연령, 일본의 과거사 사죄, 미국인의 정치 태도

I. 서론

역사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한일 양국에서는 막후에서 협상 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내에 위안부 협상을 매듭짓기를 원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일본 정부와 군의 역할 문제가 위안부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기에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총리 관저·외무성·자민당 등 일본 내 모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아베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 지지의 대가로 아베 정부를 설득하였다. 사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의 조속한 해결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시사IN』 2016. 1. 7).¹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3월 미국 국무부 차관인 웬디 셔먼(Wendy Sherman)은 “국민 감정은 여전히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대체 과거가 협력을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질문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은 (과거가 협력을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아주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Korea Times』 2015. 3. 1).² 만약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미국이 참여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다면 셔먼은 그러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현재 미국 국민들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향후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영향력을 조명하기 위하여 미국 국민들의 한일 과거사 인식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DiCicco and Fordham, 2018), 전쟁에 대한 기억은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전쟁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이른바 ‘형성 사건(formative event)’으로 작용하여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한다

¹ “위안부 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것.”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dxno=25176>(검색일: 2019. 2. 3).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일본의 자각된 양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라고 하면서 “이는 또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SBS 2015. 12. 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3544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검색일: 2019. 2. 3).

² 웬디 셔먼 발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Nationalist feelings can still be exploited, and it’s not hard for a political leader anywhere to earn cheap applause by vilifying a former enemy. To what extent does the past limit futur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The conventional answer to that question, sadly, is a lot.”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3/116_174379.html(검색일: 2019. 2. 3).

고 할 수 있다(Reiter, 1994; 1996). 본 연구에서는 형성 사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국민들이 세대에 따라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나 1980년대 미일 무역 전쟁과 같이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독일 정부에 대한 인식과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II장에서는 형성 사건에 대한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학계의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정치 세대나 형성 사건이 미국 국민들의 한일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변수들을 소개하고 나서 로짓 모형(logit model)과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학문적 또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한다.

II. 국제정치와 '형성 사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나 국가 지도자의 분쟁 및 전쟁에 대한 선호가 이른바 '형성 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정치에서 형성 사건은 주로 국가나 국가지도자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정치 사건을 의미하며, 비록 오래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도 현재 시점의 대외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큼 생생한(vivid)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다. 흔히 국제정치 학자들은 가장 현저한 정치 사건으로 전쟁이나 분쟁에 주목해 왔기 때문에 중요한 전쟁들은 형성 사건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국제정치학에서 학습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국가의 '지속되는 교훈'으로서 주요 전쟁과 같은 사례들에 주목해 왔다(Jervis, 1976; Khong, 1992; Reiter, 1996).

예를 들어 라이터(Reiter, 1996: 60)의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국제정치에 관한 지속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 자체가 국제 체제의 대부분과 모든 강대국을 포함하는 '체제 전쟁(systemic wars)'이 동맹이나 중립에 대한 해당 국가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라이터 이전의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 역시 국제정치의 결정적 사건으로 체제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ilpin, 1981; Levy, 1983; Wallerstein, 1984; Modelski, 1987). 이와 같이 대규모의 체제 전쟁은 너무나 생생하고 극명해서 개별 국가들에게 국제정치에 대한 특정한 믿음을 형성하게 만든다. 라이터의 비유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후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맬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체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국가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경험에서 향후 대외 정책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Reiter, 1996: 60).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9·11과 같은 주요한 전쟁 및 테러 사건이 형성 사건으로 작용하여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 외교 정책 결정자들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했던 홀스티와 로스나우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 20여 년 동안 대외 개입이 미국의 국제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자명하게 여겨졌으나 베트남전 이후 대외 개입은 미국의 외교 정책 논의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로 변하게 되었다(Holsti and Rosenau, 1984: 249).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군한 이후 20여 년 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대외 개입에 대한 의견충돌은 이전과는 달리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모잠비크의 반공산주의 단체 지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베트남전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미국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국제적 개입에 대한 합의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Khong, 1992: 251). 이처럼 주요한 전쟁들은 특정 국가에 정치적 교훈을 주고 그 이후 국가의 대외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아닌 주요 정치적 사건들도 특정 국가의 형성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공황 같은 경제적 재앙이나 새로운 국가의 설립 과정도 형성 사건으로서 이후 해당 국가의 대외 정책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Goldsmith, 2005).

최근 국제정치 학계에서 형성 사건은 주로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많이 조명되고 있다. 학자들은 지도자가 일찍이 경험한 정치 사건이 분쟁 중 무력 행사에 대한 정치적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국가 지도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 형성 사건으로 작동하여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Whitlark, 2017; Fuhrmann and Horowitz, 2015; Saunders, 2009). 일찍이 저비스는 국가 지도자들은 젊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한 사건들로부터 많은 정치적 교훈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Jervis, 1976; 2006: 239-269). 예를 들어 중국 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의 경험은 강압적 외교가 국제 분쟁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군사적 효능감(martial efficacy)에 관한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비폭력 노선으로 승리했던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의 경험은 외교, 비폭력, 비동맹의 효과에 대한 도덕적 효능감(moral efficacy)에 관한 정치적 신념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Kennedy, 2012; Cohen,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호로위츠 외(2015)는 국가 지도자의 과거 군 경험이 지도자의 위협 선호 성향을 촉진시키거나 제한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군대 경험은 분쟁 당시 국가 지도자의 위협 선호적인 태도를 야기하고 반면에 전투 경험은 위협 회피적인 태도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들은 군대 경험이나 전투 경험과 같이 특정한 과거의 경험을 국가 지도자의 형성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형성 사건은 국가 지도자 개인의 과거 경험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중들이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국제적 사건들은 더욱 잘 기억되며, 미래의 행위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슈만과 코닝(Schuman and Corning, 2012: 7)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을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1985년 이전의 사건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 자신들이 경험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렇듯 대규모 전쟁과 같은 형성 사건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정치적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칼라한은 19세기 이래로 중국에서 겪었던 제국주의와 국제 개입에 대한 사건들이 형성 사건으로 작용하여 중국인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생산된 국가적 수치(national humiliation)에 대한 중국의

담론들이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Callahan, 2010: 194; 장기영, 2017: 50).

III. ‘형성 사건’과 미국 국민의 과거사 인식

형성 사건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나 국가(또는 국가 지도자)가 아닌 비합리적 또는 제한적 합리성을 견지한 정치 행위자를 가정하고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그림자의 무게가 서로 다른 이유는 정치 행위자들의 인지적 한계나 특성 정부 기관에서 생기는 조직적 관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들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관련 정보는 무시당하거나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현저하고, 극적이고, 생생한 데이터가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잘못된 해석을 낳거나 종종 중요하지만 이용 가능성이 덜한 정보를 무시하게 만든다고 한다(Kahneman and Tversky, 1982).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³은 사람들에게 사건이나 결과의 확률을 체계적인 경험 분석이 아닌 정신적인 가용성이라는 편의에 의하여 판단하게 한다(Cohen, 2017: 971). 이용 가능성이란 어떤 사상(事象)이 출현할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 사상과 관련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은 미국의 정치 세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만하임(Mannheim)은 단선적인 역사관과 양적 시간관에 따라 진보적인 젊은 세대와 보수적인 나이 든

³ 일반적으로 휴리스틱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비록 명확한 실마리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적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림셈, 발견법, 간편법, 추단법, 지름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 나가면 정확한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들 수 있다.

세대 사이에는 세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만하임의 '정치 세대(political generation)'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이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만하임에 따르면, 정치 세대란 '성년 초기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연령 집단(cohort)'(Mannheim, 1952; 1997)이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 세대의 과거 경험 및 형성 사건을 고려할 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의 정치 세대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며,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의 고령층은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현저하고 생생한 국제적 사건으로 진주만 공습과 같은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하여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1944년 미국 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13%가 모든 일본인을 몰살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듬해 6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히로히토(裕仁, 1901~1989) 일왕을 처형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대부분의 미국 내 응답자는 일왕을 전범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미국 정치인의 경우, 예를 들어 앨라배마 상원 의원인 힐(Lister Hill)은 일본의 중심을 폭격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했으며, 애리조나 상원 의원인 맥파랜드(Ernest McFarland)는 일본인은 도시들이 잿더미가 되고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미국을 공격했던 것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악명 높은 인종주의자였던 미시시피 상원 의원인 빌보(Theodore Bilbo)는 일본의 항복 이후 맥아더에게 모든 일본인의 불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아들인 엘리엇 루스벨트(Elliott Roosevelt)는 과거 부통령이었고 당시 농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월라스(Henry A. Wallace)에게 미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을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폭격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프랭클린 대통령도 일본인을 온건한 다른 아시아인과 인종 개량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강제적인 인종 개량을 통해 일본인의 원시적인 두뇌와 야만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Schaller, 1985: 3-4). 이렇듯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차 대전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는 현재 고령층으로 미국 사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설 1-1: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미국의 정치 세대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가설 1-2: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미국의 정치 세대일수록 독일 정부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니며(DiCicco and Fordham, 2018), 제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정치 세대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전쟁했던 미국의 과거가 형성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왕(Wang, 2014)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많은 정책이나 관행들은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이른바 ‘수치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현재의 중국 국민들이 이러한 과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더라도 정부의 교육이나 정치 지도자 및 언론들의 담론을 통하여 형성 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 정의와 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19세기 이래로 제국주의와 국제 개입에 대해 중국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세대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2016년 5월 29일 당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방문 당시 진주만 공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언급했나? 당시 수천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글을 올렸다(『연합뉴스』 2016. 5. 29).⁴ 또한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

⁴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9046700009>(검색일: 2019. 2. 3).

전 당시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대와 마주해야 했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유력 언론사들도 과거를 직시하라는 비판적 충고를 쏟아 냈었으며, 미국 의원들도 아베 총리를 압박하는 집단 성명을 냈었다(『동아일보』 2015. 5. 4).⁵

가설 2-1: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강한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가설 2-2: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강한 미국 국민일수록 독일 정부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기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도 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80년대 미일 무역 전쟁이다.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과 같이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도 일본의 사죄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많은 미국 국민들은 향후 경제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시선이 강하였다. 일본은 컬럼비아 영화사나 록펠러센터와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체나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뉴욕 타임스』와 CBS 텔레비전의 공동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들 중의 58%는 구소련의 군사력보다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구소련과의 위협이 줄어들자 일본과의 경제적 경쟁에 관심이 더욱 쏠리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에서 자국의 수출에는 주력하지만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해 온 불공정한 나라라는 인상을 갖게 되어 대일 감정이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시사저널』 1990. 8. 16).⁶

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2786676>(검색일: 2019. 2. 3).

⁶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42>(검색일: 2019. 2. 3).

가설 3-1: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가설 3-2: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독일 정부에 비해서 일본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형성 사건은 아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인지 여부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최대 피해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 및 네덜란드 여성들까지 이르며, 위안부 문제는 탈냉전기의 국제정치하에서 새롭게 부상된 글로벌 여성 인권 문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신기영, 2016). 미국 내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이 주는 여성 인권 이슈에 대한 경각심은 미국 정치인들의 공감 및 연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계 3세인 마이클 혼다(Michael M. Honda) 전 의원은 과거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 사죄 및 역사적 책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정계에서 일본 과거사 인식을 비판해 왔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 역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는 한인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발한 시민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에서 시작한 위안부 운동은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잔혹한 성 노예 경험을 미국의 여러 대학과 단체의 청중에게 증언해 미국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2007년에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2010년부터는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을 세우는 운동으로 바뀌었는데, 뉴저지를 필두로 미국 13개 지역에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이 건립되었다(『한겨레』 2018. 1. 22).⁷ 이처럼 위안부 문제를 인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과거사 사죄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일 확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⁷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28883.html>(검색일: 2019. 4. 1).

가설 4-1: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가설 4-2: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독일 정부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은 독일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지만 두 나라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 왔다. 독일은 종전 이후 계속해서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침략당한 상대국들과 그들의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 온 반면에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과거를 미화하려고 노력해 왔다(강명세, 2010). 예를 들어 1980년대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일본 교과서와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 도중에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 문부 장관은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의 책임은 오히려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에서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가 채택되었던 상황에서도 내각의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일본의 과거사를 찬양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현 총리인 아베는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다(유용조, 2013).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독일과 비교하여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IV. 경험적 분석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형성 사건(formative event)'이나 기타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이 미국 국민들의 과거사 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와 일본 재단(The Nippon Foundation)의 공동 주관으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여론 조사를 활용한다. 본 여론 조사는 최근 독일 정부 및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

표 1 증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N
일본 정부의 사죄 필요	0.311	0.463	0	1	1000
일본-독일 정부의 사죄 필요	1.985	1.224	1	4	1000
위안부 문제 인식	0.439	0.497	0	1	1000
연령(log)	3.891	0.444	2.890	4.595	1000
제2차 세계대전 기억	0.319	0.466	0	1	1000
80년대 미일 무역 분쟁 기억	0.082	0.275	0	1	1000
여성	0.521	0.500	0	1	1000
교육 수준	4.646	1.915	1	8	993
가족 소득	4.897	2.476	1	9	873
공화당원	0.241	0.428	0	1	1000
민주당원	0.311	0.463	0	1	1000
거주지 인구 밀도	2.925	1.429	1	5	1000

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행해진 여론 조사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무선 전화(500명)와 유선 전화(500명)를 이용하여 설문 응답자를 모집하였다.⁸ 본 연구의 핵심 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 필요성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견해와 일본에 관한 인상적인 기억 및 이미지 등이다. ‘지구적인 태도와 추세(Global Attitudes & Trends in association with Sasakawa Peace Foundation USA)’라는 이름의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는 독일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 응답자의 연령(세대), 지난 75년간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관하여 묻고 있으므로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을 위하여 이상적인 설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미국 국민들의 과거사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사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부정적 기억의 효과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

⁸ 인터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실행되었으며, 무작위 표집을 전제했을 때 본 데이터의 신뢰 수준은 95%±3.6%이다.

표 2 '형성 기억'이 과거사 사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N=100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위안부 문제 인식	0.137 (0.140)	0.114 (0.141)	0.140 (0.158)	0.118 (0.159)
연령(log)	0.544** (0.163)	0.538** (0.164)	0.594** (0.189)	0.598** (0.190)
제2차 세계대전 기억	0.593** (0.144)	0.666** (0.149)	0.683** (0.161)	0.771** (0.166)
80년대 미일 무역 분쟁 기억	-	0.540* (0.248)	-	0.623* (0.268)
여성	-	-	0.401* (0.157)	0.393* (0.157)
교육 수준	-	-	-0.020 (0.046)	-0.021 (0.046)
가족 소득	-	-	-0.107** (0.036)	-0.111** (0.036)
공화당원	-	-	0.230 (0.199)	0.252 (0.200)
민주당원	-	-	0.290 (0.178)	0.277 (0.179)
거주지 인구 밀도	-	-	0.164** (0.055)	0.170** (0.055)
Constant	-3.187** (0.645)	-3.227** (0.647)	-3.663** (0.777)	-3.747** (0.781)
Log. Likelihood	-604.544	-602.262	-505.935	-503.343
N	1000	1000	870	870

주: 로지스틱 모형에서 괄호 안은 표준 오차.

**p<0.01 *p<0.05 +p<0.1, two-tailed test.

표 2의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으로 이항 변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다.⁹ 표 2의 핵심 독립 변수는 형성 사건으로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⁹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며 미일 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표기한 응답자를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 유사하게 1980년대 미일 ‘통상 전쟁’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표기한 응답자는 미일 통상 전쟁을 형성 사건으로 갖고 있다고 간주하였다.¹⁰ 또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연령은 연령의 로그값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응답자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들어 본 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코딩하였다.¹¹ 이 밖에 여성, 교육 수준, 가족 소득, 정당 일체감, 거주지 인구 밀도 등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통계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표 1에서와 같다.

우선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 변수가 과거사 사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표 2의 회귀 분석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도록 인식하는 데 연령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모형 1에서 4가지의 모든 통계 결과에서 응답자가 고령층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미국의 정치 세대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가설 1-1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¹²

또한 표 2의 회귀 분석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강한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가설 2-1이 통

세계대전 동안 일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충분히 사죄를 하였습니까, 충분히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죄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본 설문항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충분히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를 1, 그 밖의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¹⁰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형성 사건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항은 다음과 같다. “과거 75년간 미일 관계를 생각할 때 당신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자는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일 동맹, 1980년대 미일 통상 분쟁, 2011년 일본 지진/쓰나미 등과 같은 여러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표기하였다.

¹¹ 응답자의 위안부 문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신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위안부 문제’ 이슈로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들어 보았습니까?”라는 설문항을 사용하였다.

¹² 연령 로그 변수 대신 제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 세대를 구분하여 검증하거나 연령 변수를 제외한 통계 분석 결과 역시 표 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 준다. 지난 75년간 미일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기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모든 모형의 결과를 볼 때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을 미일 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가설 3-1을 뒷받침한다.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형성 사건이 일본 과거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분회귀 분석 결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기억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표 2의 모든 모형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 여부는 일본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표 2의 분석 결과는 가설 4-1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응답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적 갈등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나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 기억에 대한 변수와 비교할 때 위안부 문제 인식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현재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사이의 역사 및 외교적 갈등으로만 치부하거나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아직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2의 분석 결과는 통제 변수 중 여성, 가족 소득, 거주지 인구 밀도 역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선 모든 모형에서 여성일수록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사죄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피해 계층이 아동이나 여성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과거사 인식이 좀 더 강함

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제 변수 중 가족 소득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계숫값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국민들 중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일본 정부의 사과가 충분하거나 아니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도요타, 소니, 닌텐도, 포켓몬과 같은 일본 상품 및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일본 제품과 문화의 긍정적 이미지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¹³ 끝으로 거주지 인구 밀도 변수는 양의 계숫값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일본 정부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사 문제는 다양한 인종이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좀 더 민감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은 일본 정부의 사죄 필요성을 독일 정부의 사죄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3의 회귀 분석은 독일 정부의 사죄 필요성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한지에 대한 미국 응답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표 3의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는 독일 정부 및 일본 정부의 사죄가 충분한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으로 다항 변수이다. 응답자가 독일과 일본 두 정부에서 모두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1, 독일 정부에서만 여전히 사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2, 일본 정부에서만 사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3, 독일과 일본 정부 모두 사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면 4로 각각 코딩되었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사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특정한 서열을 선형적으로 가정하지 않기 위해 이를 명목(nominal) 변수로 취급하여 표 3에서는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하였다. 표 3의 핵심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는 표 2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에 따른 사죄 인식 차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응답자의 한일 간 위안부 갈등에 대한 인지 여부, 연령, 제2차 세계대전과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과 같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형성 사건

¹³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일본 문화 및 제품의 소비가 일본의 과거사 정책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동북아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공공 외교에 대한 노력과 정책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이에 관한 연구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공공 외교의 내용과 전략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형성 기억'이 과거사 사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일 정부 vs. 일본 정부(N=1000)

	모형 5-1	모형 5-2	모형 5-3	모형 6-1	모형 6-2	모형 6-3
	독일만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일본만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독일, 일본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독일만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일본만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독일, 일본 사죄 vs, 사죄 필요 없음
위안부 문제 인식	0.075 (0.153)	0.408* (0.175)	-0.042 (0.139)	0.086 (0.154)	0.371* (0.176)	-0.057 (0.140)
연령(log)	0.334 (0.240)	0.721* (0.309)	0.657** (0.220)	0.332 (0.239)	0.730* (0.312)	0.659** (0.221)
제2차 세계대전 기억	-0.304 (0.232)	0.555* (0.256)	0.641** (0.1876)	-0.326 (0.236)	0.700** (0.270)	0.698** (0.194)
1980년대 미일 무역 분쟁 기억	-	-	-	-0.196 (0.386)	0.859* (0.397)	0.430 (0.327)
여성	-0.168 (0.206)	0.089 (0.253)	0.491** (0.187)	-0.170 (0.206)	0.070 (0.254)	0.483* (0.187)
교육 수준	-0.256** (0.063)	-0.033 (0.074)	-0.097+ (0.055)	-0.257** (0.063)	-0.029 (0.074)	-0.097+ (0.055)
가족 소득	0.004 (0.046)	-0.118* (0.057)	-0.103* (0.042)	0.004 (0.046)	-0.124* (0.058)	-0.105* (0.042)
공화당원	0.078 (0.259)	0.340 (0.317)	0.207 (0.234)	0.067 (0.259)	0.369 (0.319)	0.221 (0.235)
민주당원	0.411+ (0.234)	0.276 (0.291)	0.436* (0.209)	0.414+ (0.234)	0.249 (0.293)	0.429* (0.210)
거주지 인구 밀도	-0.114 (0.073)	0.192* (0.089)	0.113+ (0.065)	-0.116 (0.073)	0.202* (0.090)	0.117+ (0.065)
Constant	-1.187 (0.965)	-5.495** (1.273)	-3.476** (0.906)	-1.167 (0.964)	-5.616** (1.283)	-3.516** (0.907)
Log. Likelihood	-969.394			-966.226		
N	870			870		

주: 다항 로지스틱 모형에서 괄호 안은 표준 오차.

**p<0.01 *p<0.05 +p<0.1, two-tailed test.

에 대한 기억이다. 우선 모형 5-2와 모형 6-2의 결과는 한일 간 위안부 갈등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응답자가 독일과 일본 모두 더 이상 과거사 사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에 비해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즉, 위안부 갈등을 들어 본 미국 국민들은 독일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표 2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독일 정부에 비해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 4-2를 뒷받침한다.

연령 변수와 제2차 세계대전 기억 변수 역시 모형 5-2, 5-3, 6-2, 6-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가 고령일수록 양국 모두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 또는 독일과 일본 양국 정부 모두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 확률이 증가함을 보여 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미국의 정치 세대일수록 일본 정부나 독일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 효과와 비슷하게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강한 미국 국민들도 일본 정부나 독일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모형 5-2와 모형 6-2의 분석 결과는 가설 1-2와 가설 2-2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 6-2에서 미일 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 1980년대 미일 ‘통상 전쟁’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일본의 사과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사건이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3의 결과 역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형성 기억이 과거사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 중에는 여성, 가족 소득, 거주지 인구 밀도 변수가 특정 국가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일수록 독일과 일본 모두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응답자의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3의 결과 역시 거주지 인구가 높은 경우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하여 향후 한국의 공공 외교의 방향은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미국 국민들의 역사적 기억에 연동시킴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공론화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의 실질적 후견국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지원이 중요한 변수이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공공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한국의 공공 외교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하여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 냈지만 핵심 이해 당사국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의 싱크탱크, 의회의 유력 정치인들, 언론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오바마 정권의 웬디 셔먼의 경우에서와 같이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때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인식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백우열, 2017). 따라서 향후 한국 공공 외교의 방향은 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미국 국민들의 형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동시켜 미국 정부가 때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편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범죄, 홀로코스트, 여성 인권 유린 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내 인권단체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대인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와 독일 나치 체제하의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동시대의 반인륜 범죄 피해자이기에 전쟁범죄 희생자 추모전시회, 영상물 상영 및 강연회 등을 유대인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많은 국제정치 학자들은 국가나 국가 지도자의 분쟁 및 전쟁에 대한 선호는 이른바 '형성 사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본 논문은 막후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조명하기 위하여 형성 사건을 중심으로 현 미국 국민들의 과거사 인식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저자는 전쟁에 대한 기억이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 요인이라고 간주하고 제2

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이른바 형성 사건으로 작용하여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와 일본 재단(The Nippon Foundation)에서 공동 주관으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여론 조사를 활용하여 미국 국민들의 연령이나 일본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형성 사건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대중들이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국제적 사건들을 더욱 잘 기억하여 그러한 기억들이 미래의 행위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가까운 미국의 정치 세대일수록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하여 여전히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성 기억은 특정 정치 세대에 한정되어 과거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었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일수록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함을 밝혀내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기억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인식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 여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필요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역사 인식에 통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현재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아직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공공 외교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더욱 홍보해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역사적 기억과도 관련되는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명세. 2010. “일본은 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가? 독일과의 역사 비교 연구.”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 385-432.
- 백우열. 2017. “한국 공공 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국가전략』 제23권 3호, 5-31.
- 신기영. 2016.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제15권, 282-309.
- 유웅조. 2013.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및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입장 비교와 한국의 대응 과제.” 『이슈와 논점』 제766호.
- 장기영. 2017. “안보 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 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7권 4호, 45-73.
- Callahan, William A. 2010. *China: The Pessimist 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Michael D. 2017. “Live and Learn: Availability Biases and Beliefs about Military Power.” *Foreign Policy Analysis* 13, 968-985.
- DiCicco, Jonathan M. and Benjamin O. Fordham. 2018. “The Things They Carried: Generational Effects of the Vietnam War on Elite Opin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2, 131-144.
- Fuhrmann, Matthew and Michael C. Horowitz. 2015. “When Leaders Matter: Rebel Experience and Nuclear Proliferation.” *Journal of Politics* 77(1), 72-87.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mith, Benjamin. 2005. *Imit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Observational Learning, Analogies and Foreign Policy in Russia and Ukrain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olsti, Ole and James Rosenau. 1984. *American Leadership in World Affairs: Vietnam and the Breakdown of Consensus*. Boston: Allen and Unwin.
- Horowitz, Michael C., Allan C. Stam, and Cali M. Ellis. 2015. *Why Leaders Fi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1976.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ervis, Robert. 2006. “Understanding Beliefs.” *Political Psychology* 27, 641-663.

- Kahneman, Daniel and Amos Tversky. 1982.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In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 and Biases*, edited by Daniel Kahneman, Paul Slovic, and Amos Tversky, 168-17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edy, Andrew B. 2012. *The International Ambitions of Mao and Nehru: National Efficacy Beliefs and the Making of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hong, Yuen Foong. 1992. *Analogies at War: Korea, Munich, Dien Bien Phu, and the Vietnam Decisions of 196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vy, Jack. 1983.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495-1975*.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Mannheim, Karl. 1997[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edited by Melissa A. Hardy.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Modelski, George. 1987.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Reiter, Dan. 1994.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the Shadow of the Past." *World Politics* 46, 490-526.
- Reiter, Dan. 1996. *Crucible of Beliefs: Learning, Alliances, and World Wa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Saunders, Elizabeth N. 2009. "Transformative Choices: Leaders and the Origins of Intervention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34(2), 119-161.
- Schaller, Michael. 1985.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man, Howard and Amy Corning. 2012. "Generational Memory and the Critical Period: Evidence for National and World Ev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76(1), 1-31.
- Wallerstein, Immanuel.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Zheng. 2014. *Never Forget National Humili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hitlark, Rachel E. 2017. "Nuclear Beliefs: A Leader-Focused Theory of Counter-Proliferation." *Security Studies* 26(4), 545-574.

Abstract

The Role of Formative Events in American Citizens' Attitudes toward Japan's War Apologies

Kiyoung Chang Kyonggi University

The history problem has plagued Japan's foreign relations in East Asia for decades and it shows no sign of going away. Doubts are still cast on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people. Given that bo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wo key US allies in the Asia-Pacific, this study examines how American citizens perceive Japan's war apologies. By focusing on the role of formative ev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gative formative events such as World War II and the US-Japan trade war of the 1980s critically affect the US public to think that Japan's apologies are still not enough. Individuals from a particular cohort, who experienced negative formative events about Japan, are more likely to think that apologies concerning damages caused by Japanese aggression to Asian countries are insufficient and that many issues are still unresolved. Not surprisingly, there is also a large generation gap among Americans' attitudes toward the historical awareness of the Japanese government.

Keywords | Formative Event, Japan's Apology, Historical Awareness, Generation Gap, Americans' Attitudes

